

질문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는 한국형 하브루타 ZINBOOK을 통한 진로독서

코리아에듀테인먼트 유현심 대표

<http://www.zinbook.co.kr>

문의 : 070-4064-8503

I. 유대인의 하브루타와 ZINBOOK 독서토론 개발배경

1. 유대인의 교육법 하브루타의 이해

세계 0.25%의 인구, 평균지능 세계 45위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적 리더를 수없이 배출하고, 세계적인 부호와 미국의 파워 피플 순위에서 상위권을 휩쓸며, 세계 100대 기업의 창업주를 가장 많이 배출할 수 있었을까? 성장과 발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유대인의 탁월한 성과는 갈수록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글로벌 파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인구는 유대인이 1,500만명, 한국인이 5,000만명이고, 평균 지능지수(IQ)는 유대인이 94, 한국인이 106이며, 노벨상 수상자는 유대인이 200명 이상, 한국인이 1명이고,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은 유대인이 42%, 한국인이 0.3%며,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의 창업자는 유대인이 30%, 한국인은 4%에 불과하다. 이런 큰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에 있다.

글로벌 파워 유대인을 만든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공부법이다. 하브루타(Havruta)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인 '샬롬 하베르(안녕 친구)'에서 유래 되었다. 하베르가 친구를 의미하므로 하브루타는 짝(파트너)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토론과 연습, 가르치기 등 3가지를 섞은 것이 하브루타다. 하브루타는 탈무드의 내용을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써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효과가 있으며, 인성과 창의성을 개발시켜주는 토론 학습법이기도 하다.

'주입식 암기식'으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교육과 '하브루타'로 상징되는 유대인의 교육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인의 교육은 공급자 중심, 조용한 교실, 일방 불통,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기, 대답하기 위한 '저요, 저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남보

다 뛰어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부모 등으로 설명된다. 유대인의 교육은 수요자 중심, 시끄러운 교실, 쌍방 소통, 예시바에서 짝지어 공부하기, 질문하기 위한 '저요, 저요',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남과 다른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 등으로 이해된다.

유대인이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열이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신이 명한 계율'이라 여기는 유대인들의 교육열로 뉴욕에 사는 유대인 중 70%가 대졸자이며 39%이상이 석사 또는 박사일 정도이다.

2.. 한국형 하브루타 ZINBOOK 독서토론의 개발 배경

우리 교육은 아직도 주입식, 암기식, 성과위주, 획일화, 경쟁유발, 수동적인 공부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 중, 고, 대학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면 아직도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앉아서 듣고 받아 적고 외우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수동적, 강의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배운 공부는 수동적인 공부 방법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난 후 하루 동안 남아있는 비율을 측정한 '학습효율성' 면에서 최악의 방법으로 꼽힌다. 즉, 배우고 난 후 하루 안에 남아 있는 기억이 5%정도인 것이다.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방식은 90%로 최고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두 달 정도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학생들은 오직 성적을 내기 위해 단편적으로 암기해서 시험을 보고 개인의 개성은 묻힌 채 오직 시험점수를 토대로 성적을 매긴다. 숫자화 된 성적을 토대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대학생이 되어도 자신이 왜 전공을 택했는지도 모르고 강의실에 앉아 다시 수동적인 공부를 하면서 학점을 따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직 좋은 학교 타이틀을 따기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 부터는 다시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취업 경쟁에 매달린다.

이러한 공부는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거나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부가 되지 못한다. 오직 좋은 성적 내고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급급했던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 오직 좋은 직장 취업을 위해서만 고군분투 한다. 진정한 '나'도 없고 주위사람이나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은 할 겨를도 없다. 이제 우리의 공부도 달라져야 한다.

유대인들이 우수하고 인격도 훌륭해서 무조건 닮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공부방법과 역사의식, 불굴의 도전정신, 개성을 중요시하는 가정교육, 자녀를 선물로 여기는 부모-자녀 관계,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경제교육,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등을 배우자는 것이다. 이런 절박함에서 한국형 하브루타 ZINBOOK 독서토론이 태동 하게 되었다.

한국형 하브루타 ZINBOOK 독서토론은 '진짜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진북(True North)를 찾자'는 질문 회복 운동이자 독서와 토론을 통해 유대인 못지않게 우수한 한민족의 우수성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다. 진북 독서토론은 다양한 이야기 꺼리가 있는 책을 함께 읽고 7키워드로 토론을 한다. 7키워드는 '낭독, 경험, 재미, 궁금, 중요, 메시지, 필사'이다. 각각의 키워드마다 중요한 뜻이 담겨있다.

II. 한국형 하브루타 ZINBOOK 독서토론

1. 의의

가. ZINBOOK 독서토론의 이해

1) 'ZINBOOK(진북)'이란 진짜독서(zinbook, 진북)를 통해 진정한 북극성(true north, 진북/사명)을 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세계 0.25%의 인구, 세계 45위의 지능으로 노벨상 30%, 하버드 30%를 차지한 비결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공기처럼 스며든 ‘하브루타(havruta)’다.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정과 학교, 일터 등 삶의 모든 공간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3) 원래 하브루타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성경과 탈무드로 하는 교육방식이다. 그런데 교육방식은 정서와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브루타의 가장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질문’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원조 하브루타 방식은 적용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질 것이다. 특히나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더욱 적용하기 쉽지 않다. 결국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한 한국형 하브루타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하브루타’란 무엇일까?

나. 한국형 하브루타 ZINBOOK

1) ‘한국형 하브루타’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를 바탕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활동(묵독, 낭독, 역할극, 경험나누기, 질문나누기, 필사, 토론, 비판적 글쓰기 등)을 통해 성공인과 핵심인재의 필수 요소인 ‘성품과 역량’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사색과 성찰을 통해 완벽한 이해와 암기를 하는 것이 목표인 동양식 공부방식과 두 사람 이상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신만의 의견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서양식 공부방식의 장점을 모아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고자 고안 되었다.

2) 문학과 비문학, 인문고전 등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해 ‘낭독(朗讀)과 필사(筆寫), 토론(討論)’을 하면서 바른 인성과 리더십, 자존감 향상을 통해 ‘성품’을 기르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종합적인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 능력 향상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독서법 교육을 통해 독해력과 이해력,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 시키고, 올바른 독서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유대인들의 하브루타(1:1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부방법)를 적용해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다. 잠재능력을 키우는 7키워드 독서토론

1) 잠재능력을 키우는 7키워드 독서토론(낭독, 경험, 재미, 궁금, 중요, 메시지, 필사)은 각

각의 키워드에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다.

낭독 - 낭독만 잘해도 우리 뇌의 70%를 활용하게 되어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4배 이상의 기억 효과를 보게 된다. 2011년 EBS에서 실시했던 낭독 실험에서 fMRI 촬영 결과 묵독에 비해 낭독 팀은 소뇌가 왕성하게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뇌의 다양한 영역 중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이 활성화 되는 결과를 보여 몸체 체득되는 기억이 오래 가듯이 기억이 오래도록 생생하게 몸에 축적되게 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험 - 문학 작품 속에는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비문학 책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한다. 누구나 살면서 책 속 인물이나 사건 등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마련이다. 책 속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책과 하나되는 놀라운 체험을 선물해 준다.

재미 또는 감동 - 작품을 낭독하고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간다. 책 내용중에 재미 있었던 부분 (내용이 독특하거나 재미있었던 부분, 우스웠거나 기발했던 부분, 표현이 좋아던 부분 등)이나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이 어떤 재미와 감동을 줬는지 이야기 나눈다.

궁금 - 궁금은 ZINBOOK 7키워드 독서토론의 꽃이자 하브루타의 시작이다. 책 한권을 읽고 '책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있나요?'식으로 물으면 거의 대부분 말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궁금했거나 등장인물에게 궁금한게 있었는지, 아니면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책 내용이나 등장 인물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난다. 한 사람이 궁금했던 부분을 물으면 다른 친구들도 궁금한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토론리더는 궁금하다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절대 정답을 말해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된다. '리더'라는 자리가 갖는 권한으로 인해 리더가 하는 말이 정답이 되어버려 토론 참가자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리더는 질문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 질문 한 사람의 의도를 되물으면서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른 키워드는 되도록 적지 않고 토론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만 궁금 키워드는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적어두고 나서 필사까지 7키워드 토론이 끝난 후에 참가자에게 질문을 하나 하나 되묻는다. 질문에 대한 답은 참가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나면 질문을 한 사람에게 질문의 답이 충분히 되었는지 반문한다. 시원한 대답이 없었다면 질문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이런 경우 대부분 훌륭한 자신만의 의견을 내놓게 되어있다. 역시 '좋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 해주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중요 - 7키워드의 '중요'는 유대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묻는 '마따호체프 (너의 생각은 무엇이나?)'이다. 보통 국어시간에 문학 작품 한 편을 공부하면 우리는 대부분 무엇에 집중하게 되는가? 이 글의 주제 중,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찾은 작가의 의도는 과연 정말 작가의 의도일까? 진북 7키워드에서는 작가의 의도보다 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다루며 '정답은 없다'고 이야기 해준다. 그러면 학생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과 더불어 7키워드 독서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메시지 - 이번에는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도록 한다. ‘이 책의 주제가 무엇까?’보다는 ‘이 글을 쓴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로 편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이것 또한 정답은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같을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해 준다. 그러면 대부분 편안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작가 메시지를 이야기 한다. 작가가 글을 쓴 의도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핵심을 관통하는 생각으로 접근해간다. 이 단계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논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필사 - 그대로 베껴 써놓고 두고 두고 보고 싶은 명 문장이나 명 대사를 적도록 한다. 필사를 할 때 처음부터 많은 내용을 적으려 하지 않도록 한다. 한 문장만 적도록 하면 필사에도 재미를 느끼게 된다. 필사를 한 후에 어느부분을 필사했는지, 왜 그부분을 필사했는지, 필사하고 난 느낌은 어떤지 묻는다.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냥 덮는 것과는 다르다. 지속적으로 필사하는 양을 늘려 나가면 필사의 여러 가지 장점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1:1 찬반 하브루타 - 하브루타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한다. 찬반 하브루타는 의견이 나뉘는 주제로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 해보면서 ‘역지사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디베이트 다른 점은 상대를 무조건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내가 찬성의 입장이라든가 반대 입장에서도 토론을 해봄으로써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예를들어 장기려 박사 텍스트로 1:1 찬반 하브루타를 한다면 토론 중에 주로 대립되는 논제, ‘가족보다 가난한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은가?’ 라는 주제로 하브루타 하면 좋다. 한 사람은 ‘옳다, 가족보다는 우리보다 어렵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야 한다.’, 다른 한 사람은 ‘아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가족을 먼저 챙겨야한다’라는 입장에서 토론 한다. 이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 시켜 준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찬성-반대의 입장으로 토론을 하고, 반대-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스위칭을 해서 다시 토론 한 후, 파트너를 바꾼다(체인징). 파트너를 바꾼 다음 다시 찬반토론, 다시 입장을 바꾸는 스위칭을 해서 하브루타를 실시한다. 그 다음 네 명의 하브루타 모듈원이 승-승의 더 나은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발표하도록 한다. 이런 토론 방법이 익숙해지면 정치권에서 서로 싸우며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토론 방법과는 수준이 다른 참다운 토론 문화를 몸에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진로독서 수업 시나리오 (예시)

의사 :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였던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서론에서는 간단히 8박자 박수로 집중시키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진로독서와 관련 된 초성 퀴즈를 맞추며 마음 열기를 한다.

선생님 : 다같이 선생님을 따라 8박자로 박수놀이를 해볼까요?

진/성/리/더 진/로/독/서

다음은 오늘 모시고 온 위인과 관련해서 초성 퀴즈를 내 볼거예요.

첫 번째 퀴즈는 직업과 관련 있어요. ㅇㅅ (의사) ㅅㅂㅇㅈ (슈바이처)

네~ 잘 맞았어요.

퀴즈를 맞춘 친구에게는 사탕 같은 강화물을 제공하면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시 진북 7키워드 독서토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후에는 간단하게 진로, 자기이해 - 성격, 적성, 흥미 유형에 대해 이해하는 게임을 한다(진로독서 2회차부터는 생략 가능).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인물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에 대해 이해를 돕는 간단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기려에 관한 진성 스토리를 가볍게 이야기 해 준다. 그분이 돈 많이 버는 유명한 의사여서가 아니라 그 분의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분은 삶을 통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스토리텔링 한다.

그다음 7키워드(낭독, 경험, 재미, 궁금, 중요, 메시지, 필사) 독서토론과 토론규칙에 대해 안내한다.

“간단한 토론규칙을 알아보을까요? 첫째, 책을 읽은 사람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있다가 함께 책을 낭독을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조건은 만족이 된거죠? 그리고 두 번째, 책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런 규칙이 없으면 책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로 빠져 버리기 쉽거든요~ 세 번째, 토킹스틱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경청을 합니다. (토킹스틱을 보여주며) 토킹스틱은 인디언들의 부족회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인디언들은 부족회의를 할 때 추장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돌아가면서 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토킹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경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리더 선서식을 할게요~ 우리는 모두 토론 리더의 역할을 할거니까 토론리더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토론리더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리더가 답을 말하면 그게 정답이 되어 버려서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생각을 하

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토론리더는 적절한 질문 던지기, 텍스트를 참고하도록 돕기, 상호 토론을 잘 하도록 돕기, 모든 사람이 다함께 참여하도록 돕고, 모둠 원들이 발표 할 때 주의 깊게 듣고 토론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연관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토론의 기본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토론리더 선서식을 해볼까요? 나 토론리더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선서합니다.”
(다같이 읽는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낭독을 할거예요. 선생님이 ‘거기까지’ 하는 곳까지 돌아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낭독만 잘 해도 우리 대뇌 세포의 70%를 활용할 수 있고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4배의 학습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그럼 낭독을 해볼까요? (전체 내용을 돌아가며 낭독하기)

“낭독을 해보니까 어땠나요?”(느낌 묻기)

자, 이제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토론리더가 되서 활동지에 있는대로 한 가지 키워드씩 돌아가며 리더 역할을 해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 ‘경험 나누기’는 의사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아플 때 도와준 적이 있는지 또는 아팠을 때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만나 치료된 적이 있는지 등의 경험을 나눈다. 본인의 경험이면 제일 좋고 만약 직접경험이 없다면 주변사람들의 경험이나 영화나 TV속에서 보았던 경험도 좋다.(경험은 이 책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데,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책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세 번째 ‘재미’있었던 부분은 본문 내용 중에서 재미있거나 기발했던 부분, 독특하거나 웃겼던 부분, 흥미로웠던 부분, 또는 감동적이었던 부분 등을 찾는 활동이다. 네 번째 키워드 ‘궁금’은 진북 독서토론의 하이라이트이다. 이 ‘궁금’키워드는 바로 하브루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궁금 키워드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궁금한 것이 없다고 말하다가도 한 사람이 궁금한 점을 말하면 궁금한 부분이 계속 생기게 된다. 특히 아이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면 ‘궁금’키워드를 맡은 토론리더는 친구들의 질문을 소중하게 기록해 놓도록 지도한다. 다른 키워드는 되도록 토론에만 집중하고 리더만 간단히 요약하지만 궁금 키워드는 세밀하게 잘 받아 적어놓고 ‘메시지’ 키워드 토론까지 끝난 후에 모둠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이때 유의할 점이 ‘토론리더는 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키워드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자신에게 중요하게 와 닿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어시간에 ‘주제’ 즉, 작가의 메시지를 제일 중요하게 다뤄왔다. 물론 작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진북 독서토론에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더 중요하

게 다룬다.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비판적 사고력이 키워지기 때문이다. 이 ‘중요’키워드는 유대인들이 늘상 묻는 ‘네 생각이 무엇이냐’ 즉, ‘마따호체프?’라고 할 수 있다. 중요키워드를 통해 아이들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메시지’는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주제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국어과 수업과 다른 점은 어떤 답을 말해도 다 맞는 답이라는 것이다. 어떤 답을 말해도 인정 해주는 ‘다양성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작가의 메시지를 ‘작가가 하고 싶은 말’로 바꾸어 찾는 훈련을 계속 하다보면 어느덧 책의 핵심 주제를 찾는 능력이 생긴다. 그다음 ‘필사’는 책 전체를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놓고 두고 두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적는다. 한 문장이어도 좋고 한 문단이어도 좋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다 간 진성 리더들의 명언을 적어 놓고 자신의 삶을 비추는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7키워드로 독서토론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7번 반복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된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는 집중을 위해 다시 간단한 퀴즈를 내거나 주제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1차시에 나뉘었던 토론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여러분 잘 쉬셨나요? 그럼 우리 모둠이 나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는지 조장이 나와서 발표해주세요~”(돌아가며 발표) “네~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럼 이번에는 1:1 하브루타를 해볼게요. 하브루타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해요. 주제는 ‘가족보다 가난한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은가?’예요. 한 사람은 ‘옳다, 가족보다는 우리보다 어렵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야 한다.’, 다른 한 사람은 ‘아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가족을 먼저 챙겨야한다’라는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말해주세요. 이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정말 훌륭 한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말 좋은 의견 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찬성-반대 입장으로 토론하고, 반대-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스위칭을 해서 다시 토론 한 후, 파트너를 체인지, 찬반토론, 다시 스위칭 하브루타를 실시한다)

“자~ 이제 모둠별로 나왔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모아주세요~”

“이제 우리 모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예시 : 위인처럼 나의 표비명 짓기 / 발표하기

되도록 독서토론이 끝난 후에는 활동으로 마무리 한다. 만약 내가 80년 후에 죽게 된다면 그 때 내 묘비에 어떤 글귀가 적히면 좋을지 써보고 낭독한다. 일종의 임사체험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차피 빈손으로 떠나게 되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여서 이름을 남긴다’는 명언처럼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안내한다.

마무리로 오늘 수업한 느낌을 5자 토크로 나눈다.

※ 참고 도서 : 진짜독서를 위한 ZINBOOK 독서토론(지상사/2016/서상훈,유현심,양미현 공저)

진로독서 인성독서(더디퍼런스/2016/서상훈,유현심 공저)

진로독서를 위한 10분 책읽기(라운북스/2016/서상훈,유현심 공저)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카페 ‘ZINBOOK 하브루타(<http://cafe.naver.com/zinbook>)’ : 하브루타 독서토론 관련 최신 정보, 다음 카페 학습 자료실 ‘감오행 학습법 도서관(<http://cafe.daum.net/kohstudy>)’의 천재 독서법 자료실 게시판 : 다양한 단계별 추천 도서 목록과 활동 시트, 실전 노하우 등 수록

진로 독서토론 텍스트

의사 :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였던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진로독서를 위한 10분 책읽기 / 라온북스 / 서상훈, 유현심

장기려(張起呂, 1911/8/14~1995/12/25)는 대한민국의 외과 의사이자 사회사업가로서 평생 의료봉사와 사회사업 발전에 헌신해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고, 1918년 의성 소학교에 입학했으며, 1923년(13세) 개성 송도 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8년(18세) 경성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했고, 1935년 경성 의학 전문학교 부속병원에서 첫 수술을 했다. 1940년(30세) 평양 가톨릭 병원 외과 과장이 되었고, 1951년 부산 영도구에 복음병원을 세웠다. 1956년(46세) 부산 송도에 현대식 복음병원을 설립했고, 1958년 행려병자 진료소를 차려 무료진료를 했다. 1959년 한국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을 크게 잘라내는데 성공했고, 같은 해 기독교사회를 조직해 인술의 전파에 노력했으며, 1961년 대한 의학 협회 학술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1968년(58세)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조합인 부산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 1979년 막사이사이상 사회봉사 부문을 받았다. 1995년 성탄일에 당뇨병으로 별세하였고, 199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으며, 2006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 장기려의 진성 스토리

1.

장기려는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르게 살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했다. 장기려는 경성 의학 전문학교에 합격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의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사로 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평생의 스승인 백인제를 만났다. 백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까지 소문난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 백인제는 장기려를 무척이나 아끼면서 큰 병원의 높은 자리를 추천했지만 장기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은 병원으로 갔다.

장기려는 창고를 고쳐 지은 낡은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그는 병원 옥탑방에서 허름한 물건 몇 가지만 갖고 생활하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

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이 없었습니다.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제 생애는 성공이요, 이 결심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2.

1946년 어느 날, 장기려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어느 부잣집 부인이 부탁을 했다.

"장기려 박사님, 제 며느리가 많이 아프니 저희 집에 오셔서 진료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장기려는 기꺼이 노부인을 따라갔다. 장기려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노부인의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서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친구가 건강에 좋다고 권유해서 호르몬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그 뒤부터 팔이 붓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네요."

설명을 듣고나서 장기려는 갑자기 성경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읊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많아지면 죽게 된다는 뜻이다. 장기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절대로 이런 병은 다루지 않습니다."

장기려가 화난 사람처럼 인상을 지푸리며 그냥 가려고 하자 노부인의 며느리가 다급한듯 물었다.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데 치료를 안 해주실 건가요?"

장기려는 다시 한 번 딱 잘라 말했다.

"나는 호르몬 주사같은 호사를 누린 것 때문에 아픈 사람은 고치지 않습니다."

장기려는 집 근처의 외과 병원에 가면 잘 치료해 줄거라는 말을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3.

1952년 어느 날,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일하던 장기려의 방으로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월급날이라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하는 학생이나 가정 형편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당시 장기려의 아들 장가용도 서울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하숙비를 보내줬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내주던 하숙비가 몇 달째 오지 않았다. 하숙집 주인은 하숙비 독촉을 했고, 장가용은 방학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 뵈었다. 장가용은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느라 자신에게 하숙비를 못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에 장가용은 하숙비를 겨우 마련해서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하숙집에 도착했더니 책상과 의자, 옷장 등 물건들이 하숙방 밖에 나와 있었다. 하숙집 주인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다른 하숙생을 받았던 것이다. 장가용은 하숙집 주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항상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하숙비로 가정을 돌봐야 하는 하숙집 주인의 형편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장기려는 언제 어디서든 가족보다 가난한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평양 기흥병원 외과 과장으로 일할 때는 동남하러 온 걸인을 안방으로 데려와 자신의 옷을 벗어 주고, 정성스레 밥상까지 차려서 대접하기도 했다. 평양 시내의 모든 걸인들이 장기려의 집으로 몰려든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의사로써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줬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

장기려의 아내 김봉숙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의사 남편을 만났지만 항상 쪼달리는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김봉숙은 의사들의 가운을 바느질 하거나 집안의 물건을 팔아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장기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장기려는 그런 김봉숙을 늘 마음 깊이 고마워 했다.

4.

1965년 어느 날, 부산 복음병원 원장실로 어떤 환자가 찾아왔다.

"장기려 원장님 덕분에 몸이 완쾌되어 퇴원하려고 합니다."

장기려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소식이네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환자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치료비를 못내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려는 잠깐 고민에 빠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직원들에게 병원은 돈 버는 곳이 아니니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통을 쳤었다. 하지만 직원들도 치료비를 받아야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했다. 그래서 치료비만은 꼭 받기로 직원들과 약속을 했다. 장기려는 뭔가 결심을 했다는듯 입을 열었다.

"그거 참 딱한 일이네요. 그런데 원장 마음대로 돈을 안 받고 환자를 퇴원시킬 수는 없네요. 제가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 놓을테니 직원들 몰래 도망치세요."

환자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예? 저더러 도망가라구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는 환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상황 보고를 하자 장기려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다.

"오죽 사정이 어려웠으면 환자가 도망갔겠어?"

장기려가 환자 편을 들자 직원들은 원장님이 문을 열어 준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

고는 도망친 환자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5.

장기려의 며느리 윤순자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재산세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시아버지인 장기려도, 남편인 장가용도 아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윤순자가 남편 장가용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집이 우리 게 아니에요?"

윤순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시아버지가 유명한 외과의사지만 남을 돕느라 재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살 집 한 채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장가용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윤순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아니, 그럼 우린 아직까지 집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윤순자는 알뜰하게 저축해서 집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큰 부담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수 십년을 의사로 일하면서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느라 집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며칠 후에 병원의 월급날이 되어서 장기려는 며느리 윤순자에게 월급봉투를 건넸다. 장기려와 장가용, 윤순자는 모두 대학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장기려의 월급은 윤순자의 15배나 되는 큰 금액이었다. 윤순자는 생활비를 아껴서 열심히 저축하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다. 하지만 월급받은 다음 날부터 윤순자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장기려가 어렵고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며느리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윤순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시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도와주었다. 그리고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시아버지가 보내는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빚까지 내게 되었다. 결국 윤순자는 시아버지에게 월급봉투를 돌려드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순자가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기려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윤순자는 시아버지의 생일상을 잘 차리기 위해서 산후조리도 덜 된 몸을 이끌고 음식 준비를 했다. 윤순자와 친정 식구들은 장기려가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생일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도 그에 걸맞는 대단한 사람들일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손님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장기려에게 장학금이나 생활비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윤순자와 친정 식구들은 왜 장기려가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6.

1970년 12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장기려의 며느리 집으로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어떤 걸인이 은행에 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도난이나 분실 수표가 아닌지 확인 전화를 한 것이었다. 며느리는 부산에 있는 장기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잘 지내시죠?"

장기려는 평소 때처럼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그럼, 잘 지내지. 너희도 별 일 없지?"

며느리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바로 말을 되받았다.

"예, 그런데 아버님 혹시 걸인에게 수표를 주셨나요?"

장기려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래."

며느리는 평소 장기려의 성품과 행동을 잘 알고 있었기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장기려가 걸인에게 수표를 준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면서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직접 와야 걸인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고 했다. 며느리는 번거롭지만 기꺼이 은행원을 찾아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돈을 걸인에게 건넸다. 장기려는 구걸하는 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현금이 없을 때는 수표를 선뜻 건네주기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다.

7.

1995년 어느 날, 장기려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기려는 집 한 채도, 값나가는 물건도 하나 없이 1,500만원의 재산만 남겼다. 장기려는 유산 가운데 절반을 자신의 간병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손자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며느리 윤순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했다.

"내가 죽거든 비석에 '주님을 섬기다 간 중 여기 잠들다'라고 새겨주길 바란다."

Q1> 장기려는 왜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을까요?

Q2> 가족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은가?

진로독서 ‘한국의 슈퍼히어로 장기려’ (20 년 월 일 요일)	<h1>7키워드 독토</h1>	학교 학년 반 이 름
------------------------------------------	------------------	----------------

▣ 역할극

* 배역 : 장기려, 아들 장가용, 며느리 윤순자, 부잣집 노부인, 노부인 며느리, 환자

▣ 경험 나누기

* 책의 내용과 관련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 질문 나누기 : 해석적 질문

*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미있거나 감동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책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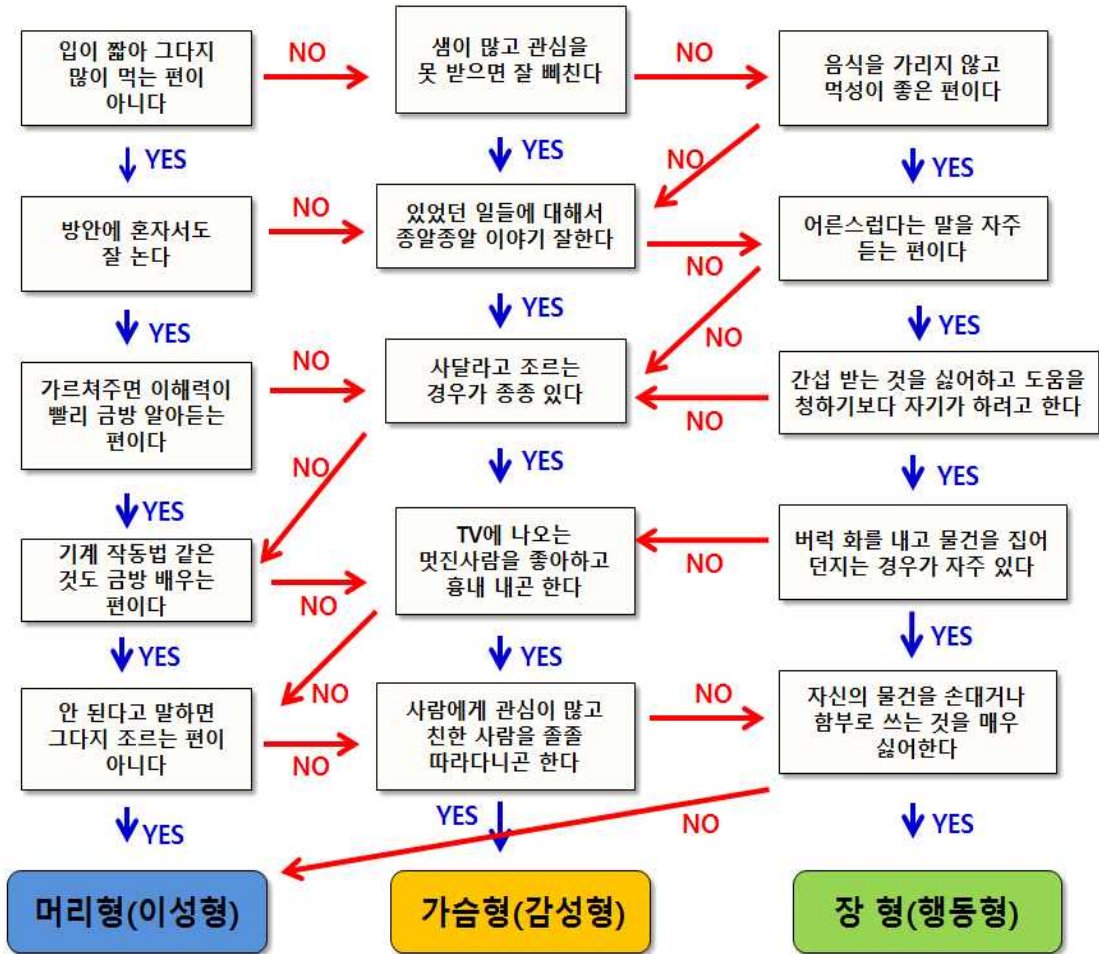
* 이 책을 쓴 작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작가의 메시지)

* 베껴 적어 놓고 두고 두고 읽고 싶은 명 문장이나 명 대사 (베껴쓰기)

▣ 비판적 글쓰기 :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찬반 하브루타 질문 : 가족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은가?

나는 어떤 유형일까?



명쾌한 머리형.
 이성적. 명쾌한 이성과 논리를 대변하는 유형이다. 항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들은 심신의 안정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함을 잘 느낀다.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에 관심이 많다.

다정다감한 가슴형.
 매우 사교적. 인간관계의 달인. 어딜 가든 관심사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으며 자기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의 내면에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끼고 두고두고 창피해 하는 경향이 있다.

화끈한 장형.
 관심사는 자신의 힘과 존재 자체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신체적인 힘이나 추진력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항상 현재에 관심이 많아 10년 뒤의 100만원 보다 지금 내 손안에 쥐어진 1만원을 더 중요시한다. 또한 지배 욕구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